### | 풍경으로의 여행 |

# 시간을 되짚어 만나는 뉴트로 감성여행

## 당진면천읍성 성안마을

### 글·사진 **정철훈** 여행작가

서울예전 사진과를 졸업했다.

사진이 좋아 여행을 시작했고 여행이 좋아 여행작가로 살아간다.

- 2017~2018년 한국관광공사 〈추천 가볼 만한 곳〉 선정위원
- 2013~2014년 코리아 실크로드 탐험대 역사기록팀(오아시스로, 해양로 탐험)
-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2005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선정 〈2030 청년작가 10인〉



당진면천읍성(충청남도 기념물 제외호)은 1439년(세종 21)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았다. 《조선왕조실록》〈세종 실록〉에 따르면, 옥천과 진잠, 석성을 포함해 충청도 관내 50여 개 군의 장정을 동원해 완성했다. 세월의 흔적이 고 스란히 남아있는 멋진 성과 함께 뉴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60~70년대 마을풍경도 당진면천읍성의 매력에서 빼놓을 수 없다.



면천읍성\_남문



- 1 남문과 남벽
- 2 남문 옹성
- 3 각자성돌







골정지 산책로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일대는 일명 '성안마을'로 불린다. 당진면천읍성(충청남도 기념물 제 91호) 안에 터 잡은 마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안마을이라면 순천의 낙안읍성(사적 제302호)과 청주 상당산성(사적 제212호)의 성안마을을 꼽을 만한데, 면천읍성 성안마을은 이들과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상당산성 성안마을처럼 번듯한 식당도, 낙안읍성 성안마을처럼 옛스런 초가도 없다. 대신 손때 묻은 키 작은 집과 이들 집만큼 소박한 식당, 이발소, 전파상 등이 골목골목을 채운다. 시곗바늘을 반세기 정도 뒤로 돌려놓은 듯한 풍경에선 무뚝뚝한 충청도 사내의 속 깊은 정이 느껴진다. 당진면천읍성성안마을의 매력은 여기에 있다.

당진면천읍성은 1439년(세종 21년)에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았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옥천, 진잠, 석성을 포함한 충청도 관내 50여 군의 장정들이 동원됐다. 이는 서벽에 남은 각자성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자성돌은 공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책임 군현, 축성연도, 축성구간 등을 돌에 새긴 것으로, 공사에 참여했던 옥천현의 경우 '己未年 沃川始面長六十尺 四寸(기미년 옥천현 축성 시작 면 길이는 육십척 사촌)'이라는 글귀를 돌에 새겨 성벽에 끼워 넣었다. 500년 전에 실시한 공사실명제인 셈인데. 당진면천읍성에는 이런 각자성돌이



영랑효공원의 군자정



골정지와 건곤일초정

서치성 부근에 세 개나 남아있다.

조선후기까지 면천의 군사와 행정을 담당했던 당진면천읍성은 지난 2014년 남문과 남벽 복원을 시작으로 제 모습 찾기에 나섰다. 현재 남서치성 복원과 객사지 유적 발굴 조사가 한창이다. 당진면천읍성과 성안마을 복원사업은 2025년께 마무리 될 예정이다.

당진면천읍성 성안마을은 남문을 출발점 삼아 돌아보면 된다. 남문 뒤로 기와집과 초가를 복원해 저잣거리를 재현했다. 아직 온전한 모습을 갖추진 못했지만 나름 운치가 있다. 속오군의 우두머리인 현감이 군무를 보던 장청은 저잣거리 지나 만난다. 전면 6칸의 'ㄷ'자형 건물이들어선 이곳에서 이총통이 출토됐다. 조선 세종 때 제작된 이총통은 손에 들고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총으로 읍성에서 출토된 건 당진면천읍성이 처음이다. 2018년 복원한 장청은 차후조선시대 전기 무기체계와 화기, 방어체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저잣거리



면천향교



풍락루





동네책방 오래된 미래

당진면천읍성의 객사와 동헌, 내아 같은 관아건물은 옛 면천초등학교와 면사무소 터에 들어설 예정이다. 면천초등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 주도 만세운동이 벌어진 곳이다. 텅 빈교정을 묵묵히 지키고 선 수령 1100년의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551호)도 명물. 고려 개국공신인 복지겸의 딸 영랑이 중병을 얻은 아버지를 위해 아미산 진달래와 안샘물로 술(두견주)을 빚고 정성을 들였다는 그 은행나무다. 영랑이 두견주를 빚는 데 사용했던 안샘과 군자정은 옛 면천초등학교 옆 영랑효공원에서 만날 수 있다.

당진면천읍성 성안마을은 감성여행지로 사랑받는다. 옛 면천우체국을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한 '면천읍성안 그 미술관'과 동네 책방 '오래된 미래' 그리고 책방과 나란히 자리한 '진달래 상회'가 주역이다. 이들 공간의 특징은 우체국, 자전거포, 대폿집 같이 오래 돼 쓸모를 다한 공간에 감성을 덧입혀 뉴트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 당진 인생 샷 맛집으로 이미 유명한 이곳



면천읍성 안 그 미술관



정겨운 성안마을 풍경



정겨운 성안마을 풍경2



콩국수

에는 무인 카페 같은 휴게 공간들도 마련돼 여행자를 위한 쉼터로도 손색이 없다.

골정지는 동문 터 너머에 있다.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이면 연꽃 향 그윽한 이곳은 연암 박지원이 면천군수로 있을 때 조성했다. 연못 한가운데 초가지붕을 올린 정자는 건곤일 초정이다. 인근 면천향교 유생들은 이곳을 찾아 시를 읊고 학문을 익혔다고 한다. 골정지를 한 바퀴 온전히 돌아볼 수 있는 산책로도 예쁘다.

당진면천읍성 성안마을을 천천히 돌아본 뒤에는 시원한 콩국수로 출출해진 배를 채워도 좋다. 식당에 따라 부추 간 물이나 쑥을 넣어 면을 뽑기도 한다. 서리태를 갈아 낸 시원한 콩물은 서둘러 찾아온 봄 더위를 날려버리기에 그만이다. 구수한 맛도 일품. 입맛에 따라 소금을 조금 넣어 먹는 것도 괜찮다.

당진면천읍성 성안마을에서 시작된 뉴트로 감성은 자연스레 아미미술관으로 이어진다. 폐



삽교호함상공원\_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구축함과 상륙함



함장실



해군의 역사를 설명하는 전시실



해병의 모습을 재현한 디오라마



교를 미술관으로 꾸민 이곳은 사진 맛집 많은 당진에서도 둘 째 가라면 서러워할 SNS명소다. 여느 미술관과 달리 전시된 다양한 미술 작품을 배경 삼아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초록 잔디 곱게 깔린 운동장에서 바라보는 미술관도 아름답다.

당진 왜목마을은 일출과 일몰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수평선 너머로 봉긋 솟는 일출은 동해의 그것과 또 다른 멋을 품었다. 왜가리를 형상화한 조형물 '새빛왜목'은 왜목마을의 랜드마크다. 몸통과 날개가 일정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 각도 조절을 잘 하면 왜가리를 타고하늘을 나는 듯한 장면을 사진에 담을 수 있다. 몸통과 날개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도 멋지다. 높이 30m에 이르는 새빛왜목은 스테인레스 표면을 각 지게 처리해 보는 위치에 따라 빛과 형상이 달라진다.

삽교호함상공원은 퇴역한 군함을 활용한 해양문화체험관이다. 우리 바다를 든든히 지켰던 상륙함과 구축함에는 우리 해군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이 마련됐다. 실제 병사 들이 사용했던 침실과 의무실 등을 미로찾기 하듯 돌아보고 재미도 쏠쏠하다. '라떼시절'을 떠 올리고 싶다면 해병들이 착용하는  $40 \log P$ 게의 군장 짊어지기에 도전해 보자. 구축함 상갑판 에는 당진 앞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카페도 마련됐다.



왜목마을



해변



96

#### 여행정보

관련 웹사이트 당진문화관광 www.dangjin.go.kr/tour.do

아미미술관 www.amiart.co.kr 왜목마을 www.waemok.kr

삽교호함상공원 www.dpto.or.kr/new/main/main.php

**여행 문의 당진시문화관광과** 041)350-3592

**아미미술관** 041)353-1555

**왜목마을번영회** 010)7369-1279 **삽교호함상공원** 041)363-6960

**숙박 정보 돌체호텔**: 당진시 당진중앙2로, 041)356-9432

당진호텔: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041)356-5757 DK호텔: 당진시 송악읍 한진포구길, 041)358-9500

초락나루펜션: 당진시 석문면 감목길, 041)353-5598, http://초락나루.kr

식당 정보 옛날그집: 콩국수, 당진시 면천면 동문1길, 041)354-3009

**초원콩국수**: 콩국수, 당진시 면천면 동문1길, 041)356-6838 **낭만조개구이**: 조개구이,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3길, 041)363-7811

해어름: 피자, 당진시 신평면 매산해변길, 041)362-1955